

남성·여성 평균 연봉 차이 2344만원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사 16곳 급여 비교

평균 근속연수 남성 13.2년·여성 9.3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사 16곳의 여성 직원들은 남성보다 평균 2300만원의 급여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회사 모두 여성 급여가 남성보다 적었으며, 100만원부터 많게는 4900만원까지 뒤쳐졌다.

23일 광주·전남 16개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최근 제출한 2019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남성 6231만원·여성 3888만원으로 집계됐다.

16곳 모두 남성 급여가 여성보다 많았고, 평균 급여 차이는 2344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급여차를 보인 곳은 금호산업으로, 여성은 남성(9000만원)보다 4900만원 적은 4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급여차는 광주신세계(4800만), 한전KPS(전력설비분야·4500만), 우리중금(3800만), 화천기공(3600만), DSR제강(3200만), 조선내화(2800만), 대유플러스(2300만), 한국전력공사(2000만), 다스코(1600만), 대유에이텍·부국철강(각 1000만), 금호타이어(900만), 금호에이치티(600만), 보해양조(400만), 세화아이엠씨(생산직·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모두 218명의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 중 여성 임원은 전체 3.2%에 불과한 7명 뿐이었다.

광주신세계·금호산업·조선내화·우리중금·대유플러스·부국철강·화천기공·세화아이엠씨·DSR제강 등 9개 회사는 아예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성 대표이사를 둔 기업은 보해양조(임지선)와 금호에이치티(조경숙) 등 2곳이었다.

평균 여성 근속연수는 9.3년으로, 남성 근속 연수(13.2년)보다 4년 정도 짧았다.

양성 간 근속연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기업은 부국철강이었다. 남성 직원이 평균적으로 17.4년을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3.9년을 일하며 근속연수 차이는 13.5년에 달했다.

공기업인 한전KPS는 전력설비분야 직원 근속 연수 차이가 11.7년(남성 15.1년·여성 3.4년)으로 뒤를 이었다.

대유플러스(10년), 조선내화(9.6년), 금호산업(7.8년), DSR제강(6.7년), 금호타이어(5.5년), 화천기공(3.3년), 한전(3년) 등도 여성이 남성보다 회사를 짧게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전남 상장법인 성별 연봉차

(단위:만원·년)

회사명	남성	여성	급여차	여성임원 유무	근속연수 차이
1 금호산업	9000	4100	4900		7.8
2 광주신세계	8700	3900	4800		1.1
3 한전KPS	7600	3100	4500	○	11.7
4 우리중금	9000	5200	3800		-2.1
5 화천기공	6900	3300	3600		3.3
6 DSR제강	6600	3400	3200		6.7
7 조선내화	5300	2500	2800		9.6
8 대유플러스	5500	3200	2300		10
9 한전	8600	6600	2000	○	3
10 다스코	4300	2700	1600	○	-0.3
11 대유에이텍	6300	5300	1000	○	-3.3
12 부국철강	4700	3700	1000		13.5
13 금호타이어	6100	5200	900	○	5.5
14 금호에이치티	4100	3500	600	○	0.2
15 보해양조	4200	3800	400	○	-3
16 세화아이엠씨	2800	2700	100		-0.5

*근속연수 차이는 남성-여성

(자료:전자공시시스템 2019년12월 기준 사업보고서)

반면 여성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일하는 회사도 5곳 있었다.

대유에이텍과 보해양조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보다 각 3년 정도 오래 일했고, 우리중금(2.1년), 세화아이엠씨(0.5년), 다스코(0.3년)도 여성 근속 연수가 더 많았다.

금호에이치티의 경우 여성 연구직 평균 급여가 4000만원으로 남성 연구직(3800만)보다 높고 평균 근속연수도 0.4년 정도 긴 3.7년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

성 연구직원은 남성(54명)의 7% 수준인 4명에 그쳤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이달 초 남녀 평균 연봉을 분리 공시한 상위기업 47개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성 연봉은 9200만원으로 여성(6000만)보다 32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근속연수는 12.8년이었고, 남성은 13.9년 여성은 9.1년으로 4.8년 차이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14.73 (+18.58) ↓ 금리(국고채 3년) 1.036 (-0.010)
- ↑ 코스닥 643.79 (+8.63) ↓ 환율(USD) 1229.70 (-2.50)

기아차 광주공장 또 멈춘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수출 어려움 노사, 27일~5월 8일 2공장 가동중단 합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또 다시 멈춰 설 것이라는 소식에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광주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연휴와 주말 등을 제외하면 6일간 휴무하는 것이다.

스포츠지와 소울 등 미국과 유럽 수출용 차종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광주2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하루 전체 생산량(2000여대)의 절반 수준(45%)인 약 900여대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봉고트럭과 군수차, 대형버스를 생산하는 광주3공장은 대형버스 라인만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무에 돌입한다.

또 카니발·스팅어·K9·프라이드·스토닉 등 해외 수출 물량 비중이 높은 차종이 주로 생산되는 소하리공장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휴무를 진행한다. 이어 추가로 5월 22일과 25일 가동을 중단한다. 실질적으로 총 8일간 휴무하는 셈이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2공장과 소하리1·2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 휴무가 결정됐다.

특히, 이번 기아차 광주2공장이 6일간 휴업에 들어가면 약 5400여대의 감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배선 장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군수라인을 제외한 1·2·3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당시 '춥다운' 여파로 광주의 자동차수출은 전년대비 8.2% 감소,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 경영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아차 광주공장 가동중단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 접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입은행 등 20개 수출유망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금리·환거래조건 등 각종 우대와 수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평가는 수출유망성, 수출활동의 수행능력 및 기술력 등을 심사해 수출지원협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스크에 예민해진 피부 점검해보세요"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장품 매장을 찾은 고객이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예민해진 피부 상태를 측정기로 점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수출입기업 지원 광주본부세관 '세정지원 5대 패키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5대 패키지'는 납부기한연장, 담보제공생략, 월별납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자동간이 환급 등이 포함된다.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최대 1년 세금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담보제공생략으로 1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월별납부는 4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는 90일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세관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요건 충족 업체를 발굴해 업체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한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광주본부세관'을 검색한 후 '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시 선착순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김광호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수출입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Him e Bborng Solar Energy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